

자본주의사회와 청소년문제

원 석 조*

- I. 머리말
- II.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청소년문제
- III. 청소년비행의 사회학적 이론과 자본주의
- IV. 네오마르크스주의 일탈이론의 한계
- V. 맺는말

I. 머 리 말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점토판에, 어느 학부모가 학교가기를 싫어하고 거리를 배회하며 선생님에게 예의바르지 않은 자식을 꾸지람하는 내용과 수업시간에 제멋대로 떠든다거나 한눈을 판다거나 허락없이 외출한다거나 하는 학생을 선생이 몽둥이로 체벌을 가한 내용이 설형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소년문제의 역사는 유구한 듯하다.¹⁾

사실 청소년문제를 사회문제의 사회학적 이

론에서와 같이 사회적 규범으로부터의 일탈 또는 사회적 규칙을 저촉하는 행위로 규정하면, 인간사회가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만든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문제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고대부터 지금까지 청소년문제의 성격과 원인이 동일한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도 지금의 불량한 학생과 같이 공부하기가 싫어서 학교를 결석한 예가 있는 것을 보면 양 시대의 무단결석이 현상적으로는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고대 노예제 사회와 현대 산업사회의 학교의 성격과 기능,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등 학생들의 사회적 일탈과 연관된 사회관계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므로 단지 불성실한 학생이 학교를 결석하는 사례가 같다고 해서 청소년문제의 역사적 불변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사회문제

*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1) 대월서점 편집위원회 지음, 이윤희 편역(1992), 에세이 세계사:고대, 서울:백산서당, pp.63-65.

가 그렇듯이 청소년문제도 그 시대의 사회성격 및 사회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²⁾

이 글은 현대의 청소년문제는 시대적 산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제반 특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우려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청소년문제는 전 자본주의시대인 봉건사회의 사회적 규범이 자본주의의 진전과 함께 붕괴된 이후 나타난 새로운 양상의 문제로서,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했고 또 기술혁신과 최근의 과학기술혁명으로 더욱 심화·발전한 자본주의가 가져온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결과물인 동시에 그것의 유기적인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사회적 현상과 기존의 청소년문제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잘 증명될 수 있다.

II.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청소년문제

봉건사회를 관류하는 사회적 제 관계의 기동

은 온정주의의 *paternalism*이다.³⁾ 봉건사회에서의 예측된 농부와 봉건영주간의 관계는 온정주의적이며, 봉건적 위계관계는 일차적으로 영주가 그의 정치적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잉여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단위를 조직화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⁴⁾

온정주의가 봉건적 현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봉건적 생산양식의 특성 때문이다. 봉건적 생산양식의 경제적 기초는 지배자인 봉건영주계급에 의한 토지의 소유와 농민의 봉건영주에의 인격적 종속이다.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는 개인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인격적 의존관계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었으며, 모든 사람간(농노와 지주, 가신과 영주, 평신도와 승려)의 인격적 의존관계는 봉건제의 사회경제적 질서 전반에 관철되어 있었다.⁵⁾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농민들이 봉건영주에게 인격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농민들은 빈번한 전쟁, 귀족의 횡포, 그들의 경제를 황폐화시킨 관헌에 대한 수많은 납세, 흉작 및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대토지소유자의 '도움과 보호'를 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대토지소유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

2) 여기서 말하는 사회구조는 이른바 주변환경의 개념과는 다르다. 주변환경이란 가정환경, 주거환경, 친구관계 등을 말하는데, 청소년비행에 관한 이론에서 보통 퍼스널리티이론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중시되는 변수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변환경은 사회의 거시적 측면이 아니라 비행청소년을 둘러싼 극히 협소한 환경 *milieu*만을 의미한다. 일례로, 청소년비행을 학교 주변 술집, 여관, 오락실 등 유흥환경의 영향으로 설명하는 것과, 학교나 주택가로부터 퇴폐·향락업소가 침투·확산되는 원상의 구조적 요인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를 연관시켜 고찰하는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

3) 온정주의는, Abercrombie와 Hill에 의하면,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파악된다. 경제적 온정주의는 생산단위를 조직화하고 피지배자와 생산수단의 소유자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양식과 연관된 경제제도이다. 예를 들면, 산업경제의 공장온정주의 및 농업경제의 토지온정주의가 그것이다. 정치적 온정주의는 경제적으로 예속된 자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목적으로 예속자를 이용하려는 온정주의적 지배를 뜻한다. 이데올로기로서의 온정주의는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는 특정한 방식을 정당화하고 규범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N. Abercrombie and S. Hill(1976), "Paternalism and Patronag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27, No.4, Dec., 413-414.

4) Ibid, p.426.

5) 짜폴로프 외 지음, 윤소영 편 해설(1990), 짜폴로프 감수 정치경제학교과서, 제 I 권 제 1분책, 서울: 새길, pp.497, 504.

의 주인(영주)이 되었다.⁶⁾

그리고 봉건영주의 입장에서든 농민에 대한 인격적 지배가 반드시 요구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봉건사회의 농민들은 자신의 경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생산수단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봉건영주는 오직 '경제외적 강제'에 의해서만 그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수가, 말하자면 그들을 지배할 수가 있었다. 이때 경제외적 강제는 인격적 예속체계의 현상 형태였다.⁷⁾

이렇게 봉건적 생산양식의 경제는 인격적 예속관계 없이는, 그리고 그것과 결부된 경제외적 강제 없이는 봉건사회의 경제적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격적 예속관계를 합리화시키는 명분으로서 봉건영주들은 피지배 농민들에 대한 보호 즉, 온정주의를 내세웠던 것이다.⁸⁾

그러나 봉건사회의 인격적 예속관계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경제적 강제'로 점차 변화하였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인격적 예속을 토대로 한 직접생산자에 대한 경제외적 강제가 생산에서 임노동의 사용에 의해

해체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⁹⁾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외적인 직접적인 강제도 변함없이 사용되어야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다. 사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만 한다면, 노동자는 '생산의 자연법칙'에 맡겨 놓기만 하면 된다. 곧 생산조건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고 또 그것에 의해 보증되며 영구화되고 있는 자본에 대한 종속이 그대로 맡겨두면 된다는 것이다.¹⁰⁾

이렇게 하여 역사적으로 생산관계를 조직화하기 위한 온정주의적 방법은 시장관계(=상품관계)와 현금거래관계 *cash nexus*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조직에게 길을 양보하였다.¹¹⁾

이같은 변화 즉, 온정주의적·공동체적 사회관계의 붕괴 또는 이의 상품적·현금거래적 관계로의 변화 현상을 놓고, 사회학자들은 공동사회 *gemeinschaft*에서 이익사회 *gesellschaft*로의 이행(F. Tönnies), 원초적 집단 *primary group*과 이차집단 *secondary group*의 분류(C. H. Cooley) 등으로 묘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6) 앞의 책, p.499.

7) 앞의 책, p.506.

8) 봉건적 온정주의 국가관은 1794년 7월 프러시아 의회가 제정한 다음과 같은 시민법전 *Civil Code*에 잘 나타나 있다.

"1. 국가는 자력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시민에 대해 생계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피부양자를 부양하는데 필요한 수단과 기회를 결여한 자를 위해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3. 나태하고 태만하거나 부절제하여 생계를 위해 제공되는 기회를 방기하는 자는 적절한 통제하에서의 강제와 처벌에 의해 유용한 노동을 해야만 한다. 4. 국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시민의 궁핍을 예방하고 무절제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G.V. Rimlinger(1971),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America, and Russia*, N.Y.: Wiley, p. 94.

9) 짜콜로프, 앞의 책, p.518.

10) 마르크스 지음, 김영민 옮김(1990), *자본* I-3, 개역판, 이론과 실천, p. 891.

자본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볼 여유는 없지만, 이 글에서와 같이 자본주의를 역사의 한 단계로 보는 입장(W. Sombart, M. Weber, K. Marx 등 경제사학자들) 이외에도, 우회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고도화된 생산방식으로 간주하는 입장(물역사적 관점, 오스트리아학파)도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M. Dobb(1963),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London: RKP, p.3-8.

11) Abercrombie & Hill, *op. cit.*, p. 427.

청소년문제 즉, 청소년들의 일탈을 논의의 진행을 위해 우선 거칠게나마 이상과 같은 봉건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과 결부시켜 보자. 봉건사회의 온정주의는 다른 말로하면 가부장주의이다. 가부장적 질서로 짜여진 봉건사회에서는 가족주의적 또는 공동체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이다. 왕은 백성을 자식처럼, 영주는 농노를 자식처럼, 신부는 신자를 자식처럼 간주한다. 아니 간주하도록 기대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¹²⁾ 이는 곧 민족국가, 지역공동체, 신앙공동체가 하나의 가족과 같았다는 것 또는 혈연공동체인 가족의 외연이 전 사회적으로 확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청소년문제는 공동체적의식의 파괴, 자아관념(=이기주의)의 지나친 표출, 가부장권과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현상한다.

반면에, 온정주의·가부장주의·가족주의·공동체주의적 인간관계를 붕괴시키면서 등장한 자본주의는 대부분의 사회관계를 경제적 관계로 바꾸어 놓았으며, 임신출세는 곧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고 몰락은 돈을 잃는 것을 의미하게 됨에 따라¹³⁾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성공과 출세, 야망과 모험심, 탐구심과 발명정신 그리고 개척심을 불어 넣어 주는 교육이 강조되고 청소년들은 이런 의식과 정신을 갖도록 훈육되었다. 사실 이같은 정신이나 미덕은 봉건적 질서하에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위험한 요소들이었다.

말하자면 신분이 지배하던 봉건사회에서는 신분에 걸맞는 행위¹⁴⁾가 평가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교육 또는 사회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분으로부터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함으로써¹⁵⁾ 경제적 재부를 축적(=경제적 성공=자본가로서의 입신)하는 것이 높이 평가받고 경제적으로 몰락(=빈곤)하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는 동기를 포기한 경우 이 자체가 처벌로 간주되었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구의 개신교는 바로 자본가로서의 이러한 성공을 종교적으로 정당화시켜 주었으며, Max Weber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이같은 자본주의 정신간의 선택적 친화력을 경제사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¹⁶⁾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청소년문제는 자본주의적 정신과 미덕 그리고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도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 물론 성공과 출세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를 추구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성공과 출세에 이르는 기회 사다리가 계층계급별로 차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좌절하거나 다른 방법 예컨대, 비합법적 기회나 수단을 찾게 된다. 이는 다음에 살펴 볼 청소년비행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들에서 잘 나타나 있다.

12) 물론 이는 관념적인 관계이며, 당시를 묘사한 문학작품에서 보듯이 실제로는 억압하고 수탈하는 일이 비밀비재하였다.

13) 슈페터 저, 이상구 역(1979),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서울:삼성출판사, p.122.

14) 귀족은 귀족다운 고상한 의무 *nobles obliges*를 다하고 농노는 농노다운 순종의 미덕을 보이는 행위.

15) 이는 "시간은 곧 돈이다"라는 격언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16) 막스 베버 저, 권세원·장명규 역(1963),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일조각.

III. 청소년비행의 사회학적 이론과 자본주의

1. 아노미론

청소년비행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들은 거의 모두 이론가 Emile Durkheim의 아노미론에 의존해 있다. 그의 아노미론은 규범이 붕괴되어 행위의 기준이 상실되었을 때 자살과 같은 사회병리가 발생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일탈은 사회적 연대성의 함수라는 것이다.

이를 발전시켜 일탈행위 일반에 적용한 사람이 R. Merton이다. 그는 Durkheim의 아노미 개념을 문화적 목표 *cultural goals*와 제도적 수단 *institutional means*간의 괴리로 파악하여 일탈행위를 설명하였다.¹⁷⁾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목표란 경제적 성공 *monetary success*을 말하고 제도적 수단이란 합법적 성공경로(즉, 교육과 취업의 합법적 기회)를 뜻한다. 이 양자 중 어느 하나라도 수용하는데 실패하면 일탈자가 된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은 그 유명한 아노미상태에서의 개인의 적응양식에서 보듯이 네

가지가 있다.¹⁸⁾

그런데, 이같은 Merton의 일탈유형이 초역사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유형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그가 예시한 '경제적 성공'이란 문화목표가 전술한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관념인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다는 것은 봉건사회에서는 매우 천박한 속물적인 인생목표일 따름이며(자본주의 초기에 봉건지주들이 부르조아지를 경멸한 것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조차 이를 거부하는 사람 예컨대, 의식형 *ritualism*인 소시민들도 있다. 그러므로 이를 단지 수용치 않는다 해서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은 철저한 자본주의적 논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성공목표에 이르는 통로(=기회)를 뜻하는 제도적 수단의 개념도 자본주의적이다. 봉건사회에서는 자신이 속한 계층이나 계급을 넘어 성공하는 통로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봉건사회를 지탱시킨 질서가 바로 신분제도이고 이 신분제도는 신분간의 이동을 완전히 차단시켜야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반

일탈행위의 유형/아노미상태에서의 개인의 적응양식

적응양식	문화목표	제도적 수단	예
동조형	+	+	일반사람
쇄신형	+	-	조직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의식형	-	+	소시민들
도피형	-	-	마약, 알콜중독자
저항형	±	±	인권·여권운동가, 혁명가

17) 이같은 목표-수단 개념은 Max Weber의 행위이론을 계승한 T. Parsons의 행위의 준거틀 이론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T. Parsons(1937),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N.Y.: Free Press, pp.79-80.

18) 김영모 편(1982), *현대사회문제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p.33.

19) 물론 신분상승의 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지는 않았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천민이 하루 아침에 귀족작위를 받기도 하고, 머리 좋은 천민이나 평민은 봉건시대의 기독교 성직자를 거쳐 출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일 뿐이다.

면에 인간을 이같은 신분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킨 것이 자본주의 사회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는 소위 '법앞의 평등'과 '참여 기회의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시민권을 모든 이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회(교육과 취업)를 평등하게 보장한 사회이다.²⁰⁾ 그러므로 Merton의 아노미론에서와 같이 합법적인 기회가 모든 계층·계급에게 일단 개방되어 있음을 전제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이다.

또한 위의 표에서와 같이 일탈이 계층별로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도 자본주의적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기회의 평등성이란 관념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계층·계급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제도적 또는 법규범적으로는 기회로부터 구속받지 않지만 경제적 능력의 대소에 따라 상당히 우월한 기회를 획득하는 층도 있는 반면 아예 그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마저 차단된 계층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기회로부터 소외된 계층 중 일부는 집단적·조직적·비합법적으로 계층의 상승이동을 도모하거나(쇄신형), 여기에서조차 소외된 층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도파형). 더욱이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집단을 조직범죄자나 사회적 낙오자 그리고 아무 의식없이 관성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시민과 동류에 놓고 저항형으로 분류한

것을 보면, Merton의 아노미론은 자본주의적인 동시에 매우 보수주의적인 이론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아노미론의 문화목표와 제도적 수단과 같은 사회적 규범을 적절히 내면화하지 못함으로써 일탈에 빠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규범에 이런 저런 이유로 자신을 적응시키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한정된 능력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적응해 들어간 인간들을 자본주의적 기준으로 유형화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다.

2. 하위문화론

하위문화 *subculture*란 어떤 집단 내의 전통적인 가치, 규범 및 행위패턴을 말한다(부분문화, 종속문화, 대항문화). 하위문화론은 일탈을 특정한 하위문화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 특히, 청소년이 열망과 성공을 획득하는데는 반드시 어떤 문화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특정 계층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상황하에서의 적응패턴이라는 아노미론의 기본가정과 후술할 하위집단 내의 문화적 상호작용이라는 문화전달론의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 하위문화론에는 Cohen의 비행하위문화론 *subcultural theory*과 Cloward와 Ohlin의 비행기회구조론 *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 그리고 Miller의 관심집중론 *focal concerns theory*이 포함된다.²¹⁾

20) 이 시민권의 확장을 진화론적 시각에서 분석한 사람이 T.H. Marshall이다.

T.H. Marshall(1977),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pp.71-134.

원석조(1983), "사회권과 제3세계," 사회정책연구 제4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pp.136-141.

21) 이상과 같은 세 이론의 구체적 내용은 표갑수, "소년비행", 김영모 편, 앞의 책, pp.222-235를 참고하였다.

Cohen은 아노미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²²⁾의 전망을 합하여 아노미적 상태하에서의 적응문제에 대한 ‘집단적 반응’을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주로 하층계급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비행(갱집단)은 계급(‘사실은 계층’)간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사회구조적 기반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미국사회의 모든 청소년들의 행동과 성취는 주로 중산계급 *middle class*의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데, 중산계급의 기준이란 열망수준의 고도화, 야심의 미덕화 *Boys, Be Ambitious!*, 개인의 책임 강조, 성취와 숙련의 강조, 세속적 금욕주의, 합리적인 생활태도와 예의범절의 연마, 사유재산의 존중 등이다. 그러나 하층계급의 소년들은 어려서부터 받아들인 계급차이적인 사회화의 양식 때문에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중산계급의 가치체계가 지배하는 사회하에서는 지위에 대한 욕구불만 *status frustration*과 자아존중의 상실감이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의 해소를 위해, 하층계급의 소년들은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반발로서 경제적 이득의 추구보다는 일종의 유희적 성격을 가진 행위를 선호하고(비공리주의 *non-utilitarianism*), 성인 사회, 비갱적인 동년배 및 중산계급의 문화와 상징에 대해 적대적이며(악의성, *maliciousness*), 일반적인 규범의 기준에 비추어 나쁜 것은 무조건 옳다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거부주의 *negativisticism*)과 같은 그들 나름대로의 하

위문화를 형성한다. 요컨대 비행하위문화는 중산계급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구조하에서 하층계급의 소년들이 당면하는 지위적 좌절을 집단적으로 해소하려는 반동형성 *reaction formation*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론에서 말하는 열망수준의 고도화, 야심의 미덕화, 개인의 책임 강조, 성취와 숙련의 강조, 세속적 금욕주의, 합리적인 생활태도와 예의범절의 연마, 사유재산의 존중 등과 같은 중산계급의 문화는 바로 거의 완벽한 자본주의적 문화가치 또는 규범이다. 이같은 가치규범은 단지 현재의 미국의 중산계급 내에 보편적으로 현상한다는 정도로 ‘전제’될 것이 아니라, 왜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적 특성으로 강조되고 또 이와같은 가치규범이 등장했으며 지배적인 것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 ‘역사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래야만 청소년문제의 본질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그리고 하층계급 소년들의 하위문화적 특성들인 비공리주의, 악의성, 거부주의도 이 이론에서와 같이 사회화 패턴의 계급차와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 즉, 중산계급적 가치규범에의 동조화의 실패로 설명되기 보다는 자본주의적 가치규범의 전계층계급적 확산과 이에 대한 하층계급 소년들의 적응의 실패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같은 실패는 개별적으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적대감으로 의도적일 수도 있다.

여하튼 Cohen이 비록 청소년비행을 중산계

22) G.H. Mead에서 출발한 이 이론은 일탈행위의 제반 원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일탈이론과 달리 어떤 행위가 문제로 규정되어 가는 그 과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재범자(전과자)의 범법행위를 설명하는데 유력하다.

그런데, 범법자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범법자로 행동한다는 논리는 일탈자의 수동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신분에서 해방된 자본주의적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합리화·정당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자신을 낙인찍는 사람을 반대로 자신이 낙인찍는 경우 *counter-stigmatization*도 있다.

급과 하층계급 소년들의 가치규범과 동조화 기회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하층계급의 하위문화(=반동형성)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적 가치규범의 계층계급적 편차를 논리화한 것이며 따라서 청소년비행에서 중요한 변수는 문화의 계층차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문화임을 확인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사회는 자본주의적 생활패턴에 적합한 인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사회가 요구하는 자본주의적 인간으로 자신을 주물화할 수 없는 하층계급의 소년들이 비자본주의적 또는 반자본주의적 문화를 가진 갱을 형성하여 좌절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려는 행위가 청소년비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Cohen과 흡사하게, Cloward와 Ohlin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직면한 적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규칙과 규범의 정당성에 대해 도전하려는데 주목하였다. 이들은 차별화된 성공기회는 타인의 유리함과 자신의 불리함을 대비시켜 분개감을 유발하고, 이같은 부정의 감정은 일탈을 야기시키며, 이때 일탈자는 유사한 상황의 타인과 집단화(갱화, 하위문화의 형성)를 시도한다고 하여, 아노미론에서 말하는 합법적 기회와 비합법적 기회의 차등화와 동일한 논지를 펴고 있다. 이점에서 이 이론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는 자본주의적 인간상의 한 단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Miller의 관심집중론은 미국식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실패한 하층민의 삶과 하층계급에 속한 청소년들의 행위패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Cohen과 달리 비행은 중산계급의 가치에 대한 하층계급의 갈등적 반응의 결과가 아니라, 하층계급의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문화적 전통의 산물로 보고 있다. 이점에서 이는 후술할 문화전달론과 유사하다. 그가 말하는 하층계급이란 이촌향도인, 인디언, 푸에르토리코인, 도시 흑인과 같은 사회적 밑바닥 사람들로서 발전의 전망이 거의 없는 층을 말한다. 이들의 주요 구조적 패턴 중 하나는 이른바 편모가정으로서 성인여성에게 의해 가족단위가 유지되는 가정이다. 여성가구주는 부모 양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고 가구에 대한 경제적 책임과 가정의 의무 및 애정의 의무까지 진다. 여기서 성장하는 소년은 성역할의 일체화 *sex-role identification*에 불만이 생기고 '진정한 남성상'에 큰 관심을 두게 되며, 이때 성인남자들의 동년배집단은 이들에게 남성의 감정, 지위 및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훈련장인 동시에 환경이 되어 이를 매우 동경한다.

그리고 하층계급의 소년들은 처음에는 중산층의 가치규범을 별로 중시하지 않다가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중산층의 지위기준은 이들에게 큰 압박을 가한다. 이러한 경험은 하층계급의 소년들을 소외시키고 결국 비행에 빠지게 만든다.²³⁾

23)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박탈감은 다음과 같은 정서 *focal concern*를 만들게 한다. 말썽 *trouble*: 경찰, 사회복지기관, 기타 유사 단체에 관련되는 것을 회피하는데 대한 유별난 관심, 거침없음 *toughness*: 용감성과 대담성, 그리고 전혀 여성적이지거나 부드럽지 않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태도, 기민함 *smartness*: 잔재주로 그럭저럭 살아가거나 남을 속여먹을 수 있는 능력을 표시, 흥분 *excitement*: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는 주말의 놀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 숙명 *fate*: 하층계급의 인생은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지배되고 소수 행운아들이 생활기회를 독점한다고 규정, 자율성 *autonomy*: 타인의 통제나 지배에 대한 철저한 거부.

이상을 요약하면, 하층계급은 주로 여성이 가장인 가족이고 이로 인해 이런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부성이 박탈되어 가족 외부에서 이상적인 남성상을 찾게 되고 취학을 하게 되면 이른바 중산층 문화를 접하게 되나 이를 적절히 수용치 못하여 결국 비행에 빠지게 되며, 이들의 비행적 하위문화는 일종의 전통이 되어 그 지역 내의 청소년들에게 전승되어 내려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Miller의 이 이론은 하층계급의 청소년비행을 ‘설명’했다기 보다는 ‘묘사’하는데 그치고 있다. 왜냐하면 하층계급 청소년들의 비행 원인으로 편모가족, 소외의식, 문화적 전통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이들의 생활의 한 단면이지 비행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오히려 자본주의적 직업생활에 적응치 못한 가장(주로 흑인)이 가족을 유기한 결과로 이해할 때 그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말하자면, 가장으로부터 버려진 가족이 자본주의적 삶에 편입될 능력을 상실하여 거의 자포자기적인 삶을 영위하고,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철이 들면서 절망적인 가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말썽, 거칠음, 기만함, 흥분과 같은 롬펜적 기질과 숙명과 같은 패배주의적 정서를 갖게 되는 가련하고도 비극적인 현상을 이론화한 것이 관심집중론이다.

3. 문화전달론

문화전달론 *cultural transmission theory*은 일탈을 설명함에 있어서 퍼스넬리티와 같은 정

신의학적 변수보다는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고 그 동기를 지식과 태도의 산물로 간주한다. 즉, 일탈은 특정한 상황하에서 일탈에 대한 지식, 신념 및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Shaw와 Mckay의 비행지대론 *delinquent area theory*과 Sutherland의 접촉차이론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이 포함된다.²⁴⁾

Shaw와 Mckay는 Burgess의 도시생태학(동심원론)을 청소년비행의 연구에 적용하였는데, 하나의 임상적 실험장으로 삼은 시카고시의 각 지대간에 비행발생률의 차이가 난다는데 주목하여²⁵⁾ 일탈은 인종, 피부색, 국적보다는 지역 *area* 그 자체로 설명된다고 주장하였다.

비행이 특정지역 즉, 전이지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회해체적 지역에 비행을 유발시키는 일련의 비행전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비행전통은 대인적이며 집단적인 접촉을 통해 전달된다. 이는 곧 이 지역의 비행은 정상적인 반응 형태임을 뜻한다. 따라서 비행은 소집단을 매개로 하여 전달되는 하위문화적 현상이며 이러한 비행전통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생활양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소년들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런 행동양식으로 수용한다.

비행전통의 문화적 전달은 Sutherland의 접촉차이론에 정교화되어 있다. 그는 비행이 유전되거나 행위자에 의해 고안되거나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다는 사회학적 학습이론을 제시하였다. 비행의 학습은 소집단, 친구집단

24) 이 부분 역시 표갑수, 앞의 책, pp.222-228을 참고했다.

25) 즉, 비행발생률은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하고 도시를 에워싼 전이지대 *zone in transition*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전이지대란 인구가동률이 매우 높고 빈민가와 우범지대의 형태로 나타나며, 인구가 저소득층, 이민, 이농, 부랑인 및 범법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해체적 지대를 말한다.

과 같은 대면집단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생기며, 그것은 범죄기술뿐만 아니라 특정한 범죄동기, 범죄충동, 범죄를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포함한다.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는 법조항이 자신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규정하는데서 학습되며 범법행위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비행소년이 된다.

이 이론을 요약하면 일탈은 부분문화(비행문화, 하위문화)와의 접촉이 강할 때 사회화과정을 통해 전달되는 학습행위이며, 범죄집단의 기능은 그 집단에 특유한 문화적 전통을 전달하는 데 있고 범죄자나 비행소년은 그 집단에 고유한 문화목표(비합법적 경제적 이득)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전달론이 정신적 결합이나 퍼스널리티의 결합, 병리 또는 유전으로 일탈을 설명한 1920년대의 일반적인 관념에 반론을 제기하여 일탈의 문화적 근원을 밝혔다는 점에서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탈을 지역,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의 비행전통의 존재(=사회적 규칙의 붕괴=사회해체)와 이 전통의 전승이라는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선 논리적으로 비행문화에의 학습이 비행을 가져온다는 것은 일탈이 일탈의 원인이라는 순환론이며, 따라서 왜 특정한 지역이 범죄지역(범죄의 온상)으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왜 그곳의 청소년들은 비행전통을 학습하는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비록 동일한 상황에서 누구는 범죄자가 되고 누구는 범죄자가 되지 않는가 하는 비판에 대해 Sutherland가 상황규정이니 감수성이니 해서 반박하고 있지

만²⁶⁾ 이는 결국 문화론자들이 극복하고자한 사회병리론과 퍼스널리티론에서 말하는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강변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범죄지역'을 상정함으로써 범죄나 비행을 전체사회와는 무관한 특정한 지역의 특수한 현상 즉, 범죄의 온상이된 슬럼지역의 '고유한' 문제로 간주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대로 일탈이 슬럼지역의 일상적 부분이라 하더라도 슬럼지역은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못한 낙오자들의 집단거주지란 사실을 상기하면 일탈의 지역성 역시 자본주의와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범죄자나 비행소년이 그 집단에 고유한 문화목표로서 비합법적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아노미론과 다를 바 없는 논리로서 경제적 성공이라는 자본주의적 가치를 수용하되 합법적으로는 이를 성취할 수 없는 패잔병들의 토펙적 자구책을 그럴듯한 학술용어로 분석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같은 사회해체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규칙의 붕괴는 이 이론에 의하면, 공동체적 태도 *We-Attitude*가 이기적 태도 *I-Attitude*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같은 현상은 바로 앞에서 서술한 봉건적 가치규범의 붕괴와 자본주의적 가치규범의 등장과 지배적 확산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IV. 네오마르크스주의 일탈이론의 한계

한편, 1970년대초의 미국사회의 위기심화와

26) 상황규정 *a definition of the situation*: 대안들이 눈에 띄지 않거나 범죄행위가 유용하다고 생각될 때 범죄자가 된다. 예컨대, 정직한 사람이라도 대안이 굶주림일 경우 훔칠 수 있다. 감수성 *susceptibility*: 만약 어떤 사람이 낮은 감수성을 갖고 있다면 범죄행위에 대한 접촉을 꺼릴 것이다.

이에 따른 학계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부활과 함께 범죄이론 분야에 등장한 Taylor, Walton, Young, Quinney, Spitzer 등의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잡다한 사회문제의 사회심리학적, 사회학적 원인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사회문제 이론들이 자본주의 국가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요한 것은 제반 원인들보다는 문제로 규정되는 과정(범죄통제 메카니즘)의 정치경제학적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사회문제와 자본주의 생산양식, 계급구조, 권력관계간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 이론의 대표자인 Quinney에 의하면, 형법은 국가와 지배계급이 기존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고 영구화시키기 위한 도구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범죄통제는 법 이외에도 이데올로기의 제도화 기관(교육, 종교, 매스컴 등)을 통하여 수행된다. 그 결과 피지배계급은 계속 억압된다.²⁷⁾

그리고 이론가 Quinney의 비판범죄학의 명제에 이들의 입장이 집약되어 있는데, 그것은; ① 미국사회는 고도의 자본주의 경제에 기

초하고 있다. ② 국가는 경제적 지배계급 즉, 자본주의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조직된다. ③ 형법은 국가와 지배계급이 기존의 사회,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영속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④ 자본주의 사회의 범죄통제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의 엘리트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각종의 제도와 기관을 통해 국내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수행된다. ⑤ 심화된 자본주의 모순은 종속계급으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수단에 의해서, 특히 법체계의 강제와 폭력에 의해서 계속 억압받도록 강요한다. ⑥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와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된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의해서만 범죄문제가 해결될 것이다.²⁸⁾

결국 이 이론은 일탈의 잡다한 원인보다는 일탈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의 선택적 통제의 본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심영희는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도덕적 규정과 자본주의 국가의 규정을 조합시켜 다음 그림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의 범죄를 세 가지로 유형화시켰는데, 이 그림으로부터 자본주의 국가의 범죄에 대한 선택과 배제의 의미를 잘 파악할

국가적 및 도덕적 범죄의 개념과 범죄의 선택 및 배제

		도덕적 규정		
		범죄	비범죄	
국가적 규정	범죄	통상적 의미의 범죄	기존체제를 위협하는 범죄	선택
	비범죄	체제에 기능적인 범죄	범죄가 아님	배제

[출처] 심영희(1987), 앞의 책, p.347.

27) 심영희(1987), 비판범죄론: 일탈과 통제의 분석, 서울: 범문사, pp.40-41.

28) 심영희(1988), 국가권력과 범죄통제, 서울: 한울, pp.38-39.

수 있다.

또한 Spitzer는 마르크스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사회는 재산관계에 위협을 주는 일탈자를 문제인구 *problematic population*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사회적 폐품 *social junk*으로서 지배계급의 측에서 보면 비교적 해가 없으면서 사회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무리들이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역할에 참여하기를 실패했거나 참여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폭발물 *social dynamite*로서 기존의 사회관계와 생산관계 그리고 지배관계에 도전하는 인구이며 사회적 폐품에 비해 문제의 성격이 심각하고 정치성을 갖는다.²⁹⁾

이상과 같은 네오마르크스주의 일탈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와 일탈행위간의 관계를 이론화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갖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낙인이론과 흡사하게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일탈자가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과 그것의 본질만 강조함으로써 원인으로서의 자본주의 결과로서의 일탈 또는 청소년비행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일탈의 인과론이 보수주의적이고 부르조아적이라는 데 있는데, 단지 일탈을 결과로 놓고 그 원인이 되는 변수를 탐색하는 것 자체가 보수적이고 부르조아적이라고 비판받아야 하는지 선뜻 납득키 어렵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에 비추어 일탈이 규

정되는 과정의 성격을 밝히고 일탈자를 유형화하는 작업만으로 과연 자본주의 사회의 일탈의 본질이 규명되는지도 의심스럽다. 내가 보기에 이들의 이론은 국가의 의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이론이라기 보다는 사회통제론에 훨씬 가깝다. 따라서 이 이론은 동기이론 *motivation theory*으로서의 논리적 오류와 자본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 사회통제론이 갖는 한계를 그대로 지닐 수밖에 없다.³⁰⁾

V. 맺는말

이상과 같이 봉건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온정주의적 가치규범이 화폐중심적·상품중심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로 인해 청소년비행은 자본주의적 질서를 부정하거나 거기에 적응치 못한 행위로 규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청소년비행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들이 청소년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요인들을 동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적 직업세계와 문화에 부분적으로밖에 포섭되지 못한 주변인들의 고되고도 롬펜적인 삶의 방식³¹⁾을 ‘몰역사적으로’ 묘사하는데 그쳤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네오마르크스주의 일탈이론의 한계도 지적하였다.

한편, 청소년비행의 사회학적 이론에 있어서

29) S. Spitzer(1975), "Toward a Marxian Theory of Deviance", *Social Problems*, Vol.22, June, pp. 638-651, 645-646.

30) 사회통제론의 한계에 대해서는 원석조(1990), 한국의료보험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11을 참조.

31) 롬펜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성격과 계급적 의미에 대해서는, 드레이퍼 지음, 정근식 옮김(1986), 계급과 혁명, 서울:사계절, pp.317-349를 참조.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이론적 문제점으로 인종문제를 언급치 않을 수 없다. 사실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론들의 주된 연구대상은 슬럼지역 내의 흑인가정과 흑인 청소년들(또는 멕시코계들)의 비행이다. 자신이 백인이고 또 백인 중산층의 가치관을 가진 게 틀림없는 청소년비행의 연구자들의 눈에, 거칠기 짝이 없고 비합리적 행위를 예사롭게 하며 공부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이는 유색인종 청소년들이 갱을 형성하여 비행을 저지르는 행위가 문화적으로 굳어져 있는 것(비행의 일상화)으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유색인종 청소년들이 합법적인 기회로부터 배제되자 비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성공하려 애쓰고, 자신들이 보유하지 못한 중산층적 가치규범에 화풀이하듯이 도전하며, 소외감을 참나적 쾌감으로 해소하려는 모습들로 기술되는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점에서 이들 청소년비행학자들의 하층계급 청소년들에 대한 태도는 동정적이다.

그러나 만약 이들 이론에서 묘사된 미국 비행청소년들의 삶이 사실이라면, 동정심이 앞서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이 이론들에서 나타난 비행청소년들의 행위패턴은 조금도 건강하지가 않다. 이같은 행위는 립펜적 기질을 가진 불량한 청소년들이 한편으로는 멋져 보이는 부

르조아적 문화를 가진 중산층 청소년들의 생활을 동경·시기·질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해도 자신들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예단하여,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규합하여 그 안에 나름대로의 규범과 질서를 만들고 몇몇은 보스가 되어 거들먹거림으로써 중산층적 삶에 대한 좌절을 단지 심리적으로 위안삼는 패배주의적 몸부림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비행을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으면, 슬럼지역의 유색인종 청소년들이 주로 비행을 저지르며, 대부분의 백인 청소년들은 건전하고 혹시 비행을 저지르더라도 비행문화에 물든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발적인 실수로 간주된다는데 있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비행은 유색인종의 전유물이 되고 만다. 결국, 미국의 청소년비행 이론은 유색인종 청소년들이 비행의 숙명성과 거의 유전적인 비행인자를 지니고 있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의 비과학성에 대해서는 구태여 이 글에서 밝힐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록 미국사회가 형식논리적으로는 인종차별을 철폐했지만, 백인들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의식이 여전히 완강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은 최근 발생한 로스엔젤레스의 인종폭동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참 고 문 헌

김영모 편(1982), 현대사회문제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대월서점 편집위원회 지음, 이윤희 편역(1992), 에세이 세계사:고대, 서울:백산서당.

드레이퍼 지음, 정근식 옮김(1986), 계급과 혁명, 서울:사계절.
마르크스 지음, 김영민 옮김(1990), 자본 I-3, 개역판, 이론과 실천.
막스 베버 저, 원세원·강명규 역(1963), 프로

- 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일조각.
- 슘페터 저, 이상구 역(1979),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서울: 삼성출판사.
- 심영희(1988), 국가권력과 범죄통제, 서울: 한울.
- 심영희(1987), 비판범죄론: 일탈과 통제의 분석, 서울: 범문사.
- 원석조(1983), “사회권과 제3세계,” 사회정책연구 제4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원석조(1990), 한국의료보험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짜콜로프 외 지음, 윤소영 편 해설(1990), 짜콜로프 감수 정치경제학 교과서, 제 I 권 제1분책, 서울: 새길.
- N. Abercrombie and S. Hill(1976), “Paternalism and Patronag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27. No. 4, Dec.
- M. Dobb(1963),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London: RKP, p.3-8.
- L.T. Empey(1982), *American Delinquency: Its Meaning and Construction*, Homewood, Ill: Dorsey Press.
- D.C. Gibbons(1982), *Society, Crime and Criminal Behavior*, N.J.: Prentice-Hall.
- P.B. Horton and G. R. Leslie(1955), *The Sociology of Social Problems*, N.Y.: Appleton-Century-Crofts.
- T.H. Marshall(1977),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 R. Merton and R. Nisbet(1961),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4th ed.,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 T. Parsons(1937),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N.Y.: Free Press.
- G.V. Rimlinger(1971),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America, and Russia*, N.Y.: Wiley.
- T. Simmons(1969), *Deviants*, Berkley: Glendessary.
- S. Spitzer(1975), “Toward a Marxian Theory of Deviance,” *Social Problems*, Vol.22, June.
- M.S. Weinberg and E. Rubington(eds.) (1973), *The Solution of Social Problems*, N.Y.: Oxford Univ. Press.